

정치의 정신생리학

| 스테판 슈워츠 | 심정요 옮김 |

강한 보수주의는 두려움을 느끼는 편도체가 더 커지는 경향과 연관 있고, 강한 자유주의는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전두피질과 낙천주의를 담당하는 전측 대상 회가 더 크다고 합니다. 즉 자기를 지키는 데 더 큰 관심을 보이는 성향은 편도체가, 돌파하고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성향은 전두, 전측 대상회라는 신경생리적 측면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순전히 마음의 일만은 아니며 따라서 우리 삶의 경향은 몸과 마음의 연합임을 잘 보여줍니다(편집자 주).



미 국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정치 과정은 진보한다는 믿음인데, 그 근거는 객관적 현실에 대응하려고 이성적 토론과 논의를 한다는 것이다. 사실^{fact}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오랜 기간 지속되므로, 장시간 철두철미한 논쟁을 벌여 타협점이 가결 되는 과정에서 사실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관점이 드러나게 된다. 이에 인용된 기초 사례는 헌법제정회의이다.

예정보다 한 주 늦은 1878년 5월 25일, 각 주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였다. 이 55인의 대표들은 각 주를 대표하여 모두들 자신들의 이익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이후 세 달간, 논쟁을 계속하던 그들은 점차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타협점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미국 연방 헌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마침내 39명이 서류에 서명했다.

그것은 사실이다. 지독하게 덥고 후덥지근한 여름, 의욕에 가득 찬 수십 명의 사람들을 몇 달동안 밀실에 몰아놓고 미 연방헌법 제정을 목표로 노력과 실패를 거듭하게 하다보면 결국에는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문을 걸어 잠근 채 며칠이고 토론하는 광경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인가? 실제 토론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이들, 즉 옹호자와 반대자, 반대자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간에 합의점이 타결될 때까지 진행된다. 아마도 헌법 제정은 그다지 좋은 사례가 아닐지도 모른다. 미국의 정치 내러티브의 테두리를 벗어난 다른 요인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한발 더 나아가,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이 전혀 사실관계와 상관없고 이성적인 숙고의 결과도 아니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거의 자각하지 못한 채 정신생리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어림잡아 지난 15년 동안, 사회과학과 신경과학의 융합은 정치가 이성적 사고보다 정신생리학에 훨씬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사실에 기반을 둔, 이 새롭게 부상하는 학문영역에서 우리 인간은 호르몬과 집단 역학 관계, 부정적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다. 2001년,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심리학 교수인 프랜시스 에페스Francis Eppes와 로이 바우마이스터Roy Baumeister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나쁜 사건의 힘이 좋은 사건의 힘보다 강한 사례는 모든 사건, 다시 말해 일생의 주요 사건(트라우마 등),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 사회적 인맥의 패턴, 대인간 상호작용, 학습 프로세스 등 모든 사례에서 발견된다. 나쁜 감정, 나쁜 부모, 나쁜 피드백은 좋은 감정, 좋은 부모, 좋은 피드백보다 영향력이 크며, 나쁜 정보는 더 철저하게 처리된다. 자아는 좋은 자기 인식을 추구하기보다는 나쁜 자기 인식을 피하는 데 더욱 고무된다. 나쁜 인상과 나쁜 고정관념은 좋은 인상과 좋은 고정관념보다 빨리 형성되며 부당한데도 저항하기 쉽지 않다. 진단성과 현저성 등 이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설이 나왔지만 나쁜 사건의 영향력은 해당 변수가 통제되었을 때도 발견된다. 여기에는 (좋은 사건의 영향력을 포함해서) 어떤 예외도 찾기 힘들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 심리학 법칙이기도 하다.¹

네브래스카 대학의 파운데이션 리젠트 대학, 링컨 대학에서 교수를 맡고 있으며 케빈 스미스와 존 알포드와 함께 정치학을 전공한 정치심리학자 존 히빙John Hibbing은 이 문제를 더 깊이 연구하는 데 착수하였고 그 결과를 <행동 및 두뇌 심리학Behavioral and Brain Sciences>지에

“부정적 성향의 차이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를 구분짓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가 상황의 부정적인 특성에 대처하는 생리적, 심리적 반응이다. 자유주의자와 비교할 때,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자극에 더 큰 생리적 반응을 보이며 더 많은 생리적 자원을 투입한다... 정치는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DNA’에 있는지도 모른다.”²

사회과학과 신경과학이 융합된 이 새로운 분야에서 나온 자료를 파고 들어가보면, 심리적, 생리적 영향이란 것이 얼마나 미묘하면서도 강력한지가 순식간에 분명해진다. 예전에 영국 플리머스 대학 심리학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는 캠브리지 지저스 칼리지 심리학과 선임 연구원이자 수석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시몬 슈넬(Simone Schnall)은, 자신의 대학 심리학과와 버지니아 대학, 스탠포드 대학이 공동으로 구성된 연구팀을 이끌고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황적, 감각적 경험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좀 더 엄격한 도덕적 판단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그 사실을 보다 확실하게 뒷받침하고자, 슬픔이 혐오감보다 엄격한 도덕적 판단을 유발하는지 측정하고자 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혐오감은 도덕적 판단을 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상에 영향을 주는가?”³

연구팀은 이 질문에 답변하고자 다음 네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감각의 피험자가 되는 동시에 도덕적 판단을 내리도록 요청받았다. 첫 번째 연구에서 혐오감을 유발하는 나쁜 냄새를 가득 채운 실험실에서 판단을 내리도록 요청받았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방 자체가 혐오감을 유발했다. 세 번째 연구에서는 물리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험을 한 뒤 판단을 요청받았다. 네 번째에서는 비디오를 시청했다. 이 비디오는 슬픔을 유발하는 비디오였

다.

슈넬 연구팀은 아래와 같이 기록했다. “네 가지 연구에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혐오감을 유발한 결과, 신체가 느끼는 혐오감과 도덕적 비난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네 가지 실험의 각 결과는 관계의 네 가지 특성을 보여주었다. 첫째, 판단 대상이 된 행동이 혐오스럽든 아니든 관계없이 혐오감은 고루 영향을 미쳤다. 둘째, 변별타당도에서 입증되었듯, 혐오감이 도덕적 가치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만 비도덕적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셋째, 혐오감의 영향은 신체적 신호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혐오감의 주요 개념보다는 혐오감이라는 느낌 자체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넷째, 혐오감과 도덕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유발된 슬픔은 혐오감과 유사한 효과가 없었다.”³⁴

이러한 요소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선거에 어떻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투표소가 교회일 경우 투표자는 공립 학교에서 투표하는 사람보다 좀더 우익 성향으로 투표를 한다.⁴ 생각해보라, 정치의 정신생리학을 이해하는 정치 정보원이라면 투표 장소 선정만으로도 투표의 가치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이다. 케이블 뉴스나 신문에 등장하는 일반적 정치적 논의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히빙이 언급했듯이 “정치성향은 심리적, 생리적 반응 패턴과 체계적인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²

예루살렘 헤브루 대학의 샬롬 슈워츠Shalom H. Schwartz는 연구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성격이나 사회 인구 통계학적 변수보다 기본적인 가치가 정치적 태도와 선호도의 차이를 더 잘 설명해준다. 정치 영역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가치는 부정적 성향의 정도를 반영하는 가치들이다. 부정적 성향

을 반영하는 가치들 간의 갈등은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가 각각 무엇을 걱정하는지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이데올로기와 부정적 성향의 관계를 선형으로 보여준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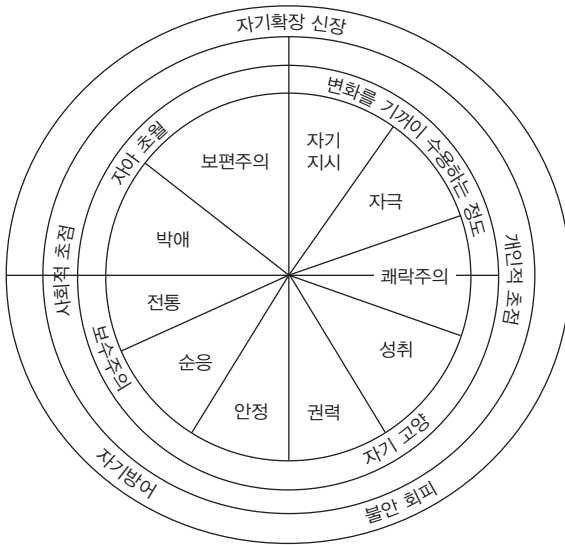


그림 1. 슈워츠는 이같이 설명한다. “이 그림은 열 가지 기본 가치를 동기에 따라 원형으로 조직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바깥에 있는 세 원에 표기된 원치들은, 원 한가운데에 있는 가치들을 조직하고 그것의 기반이 된다. 두 가치는 양립이 가능하거나 반대되는 동기를 표현한다. 전통과 순응처럼 양립 가능한 가치일수록 가까이 배치되어 있고, 전통과 쾌락주의처럼 충돌하는 가치일수록 떨어져 있다.

슈워츠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그림 1과 같이 표현하였다.

슈워츠는 ‘동기를 부여하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보편주의 : 이해, 감사, 관용 및 만인과 자연에 대한 복지
- 자기지시 : 독립적 사고와 행동—선택, 창조, 탐구
- 안전함 : 안전, 조화, 사회 안정성, 관계, 자아
- 순응 : 행동에 대한 제약, 남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남을 해치기 쉬운 성향, 충동, 사회적 기대나 표준을 어기려는 성향

- 전통 : 관습과 전통 문화나 종교가 주장하는 사상에 대한 존중, 책임 이행, 수용.

아니나 다를까, 여론 조사 전문 기관은 아래와 같이 보고한다. “미국에서 정당과 자신을 대체로 동일시하는 경향은 지난 6년 반 동안 많이 약해진 반면, 종교와 정당과의 동일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매우 종교적인 미국인들은 공화당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공화당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평균적으로 종교적이거나 비종교적인 미국인에 비해 민주당과는 동일시 정도가 약하거나 선호하는 경우가 적었다.”⁶

표 1. 종교에 따른 소속 정당 (2014년 6월)

	공화주의자/ 지지자	무소속/ 지지자 없음	민주당/ 지지자	차이 : 민주당 지지자-공화당 지지자를 뺀 값
매우 종교적인 미국인	49	11	36	-13
중간 정도로 종교적인 미국인	38	14	44	+6
비종교적인 미국인	29	15	52	+23

여론 조사 기관은 데이터를 매일 추적.

표 1에서 보듯 두 요소의 상관 관계가 강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정신생리학과 정치학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들이 축적되면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이 한 가지 있었다. 바로 두려움과 위협 회피, 부정적 편향 같은 용어가 해당 분야에서 자주 쓰였다는 것.

그러나 단순히 심리적 문제만은 아니다. 나는 편도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쓴 바가 있다. “측두골 깊숙한 곳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두뇌 구조로서 아몬드처럼 생겼으며... 두려움, 스트레스, 위협, 혹은 극복해

야 할 스트레스가 일정 수위까지 도달했을 때 활성화된다. 이것은 위험을 지각하고 목숨을 지키려는 투지에 찬 반응이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이성적인 사고는 무시당한다.*” 여기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점은 이 반응이 매우 정치적이라는 사실이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강한 보수주의는 편도체 부피가 커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7,8}

이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사실도 밝혀냈다. “강한 자유주의는 전두대피질의 회백질, 즉 복잡한 문제를 다룬다고 생각되는 영역의 양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있다. 본 연구는 보수주의자의 두뇌 중 전측대상회가 더 작다고 보고했다. 이 영역은 용기와 낙천주의를 담당한다.”⁹

이것은 정치의 정신생리적 측면을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이 이 세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신경학자 게레인트 레스Geraint Rees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경험에 따라 정치적 태도가 뇌구조에 유전자 부호로 새겨진대거나 혹은 뇌구조에 따라 정치적 태도가 결정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¹⁰

내가 특히 강조하는 대목은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이성적 사고를 무시한다.”는 구절이다. 이것은 기후 변화, 세계 대양의 산성화, 탄소에너지의 전환, 항생제의 실패 등과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인류가 연이어 부닥치게 된 원인을 설명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지 한참이 지났으나 제대로 해결된 것은 거의 없다. 사실 관계는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지 못하고 이성적 사고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심리적 이유든, 생리적 이유든 우리를 특정 행동으로 몰아가는 동기가 무엇인지는 어렵듯이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예일 법학 대학 교수인 댄 카한(Dan Kahan)은 조지 워싱턴 법학 대학 교수 도널드 브라만과 오클라호마 대학 행크 켄킨스 스미스와 공동으로, 사실과 믿음의 관계를 밝혀내기 위해 연구팀을 꾸렸는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위험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란 그들의 가치에 맞도록 위험에 대한 자각을 형성하는 개개인의 성향을 일컫는다.”¹¹

따라서 카한 연구팀은 이렇게 정의한다. “문화적 인지란, 위험하다고 추정되는 활동을 접했을 때 위험에 대한 자신의 인식 혹은 관련된 사실에 관한 믿음을, 사회가 널리 공유하는 도덕적 기준에 일치시키려는 개인의 성향을 의미한다. ‘문화적 인지 이론’(cultural cognition thesis)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개인은 심리적으로 자신(혹은 동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행위가 사회에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비도덕적이라고 여기는 행동은 사회에도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했다.”³

이러한 무의식적인 편향성은 아래 지적인 대목까지 이른다. “...문화적 인지는 신뢰성을 지각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개인은 정보를 얻을 때 자신의 세계관과 같다고 생각되는 전문가의 지식과 신용에 크게 의존하며, 자신의 세계관과 다른 전문가들에게서는 정보 얻기를 거부한다.”³

카한의 팀 연구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속한 그룹에 받아들여지고 그룹의 의견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사실 자체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냈다.

이 모든 것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이렇다: 대부분 의식적 자각 없이 일어나고 있는 정신생리학적 영향이, 자신의 위치와 삶의 네트워크를 사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뿌리깊은 믿음, 그리고 부정적 편향과 결합하여, 우리의 정치를 형성한다. 이것은 민주 공화국이 어떻게 작

동되는지에 관해서도 상당히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 모든 사실관계는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 그것이 개인의 이익에 반한다고 해도 말이다. 연구 결과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관건은 이러한 사실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 대답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나는 믿는다.

1787년 9월 18일 헌법 제정 회의의 마지막 날, 헌법에 서명한 직후 주 대표자들은 구 주청사, 현 독립기념관을 줄지어 나갔다. 메릴랜드 주 대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제임스 메켄리James McHenry는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과 나란히 건물을 나서다가 한 여성이 프랭클린을 멈춰 세우고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는 뭘 얻게 되나요? 공화국? 아니면 군주제?”

프랭클린은 이렇게 답했다. “공화국이죠. 유지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¹²

프랭클린의 통찰은 오늘날까지도 전혀 그 빛이 바래지 않고 생생히 살아있다. (끝) 

- 이 글은 《The Psychophysiology of Politics》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스테판 슈워츠Stephan A. Schwartz | 일간 웹 간행물 Schwartzreport (<http://www.schwartzreport.net>)의 편집자. 이 간행물은 미래를 형성하는 추세를 집중 탐구하고 있는데, 이는 1960년대 중반에서 시작된 연구 영역이다. 그는 인지 과학 연구 협회 연구원으로 기초 연구를 하고 있다. 35년 동안 슈워츠는 의식의 속성, 원격 투시 일부 분야, 힐링, 창의성, 종교적 엑스터시, 명상 등의 연구 분야에서 적극적인 실험주의자로 활동하였다. 그는 몇 권의 저서를 집필하였으며 수많은 논문, 기술 보고서를 썼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당 주제에 관한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역자 | 심정요 | 〈지금여기〉 번역위원

참고문헌

1. BaumeisterRF,BratslavskyE,Finkenauer C, Vohs KD. Bad is stronger than good, *Rev Gen Psychol*. 2001;5(4):323-370. <http://dx.doi.org/10.1037/1089-2680.5.4.323>.
2. Hibbing J,SmithK,AlfordJ,Differences in negativity bias underlie variations in political ideology. *Behav Brain Sci*. 2014; 37:297-350.
3. Schnall S,Haidt J,Clore G,Jordan A. Disgust as embodied moral judgment, *Pers Soc Psychol Bull*. 2008;34(8):1096-1109. <http://dx.doi.org/10.1177/0146167208317771>. [Epub 2008 May 27. PMID: 18505801].
4. Rutchick A. Deus ex machina: the influence of polling place on voting behavior. *Polit Psychol*. 2010;31(2):209-225.
5. Schwartz SH. Negativity bias and basic values. Commentary on Hibbing. In: Hibbing. pp. 328-329.
6. Newport F. Religion remains a strong marker of political identity in U.S. The Gallup Organization. <http://www.gallup.com/poll/174134/religion-remains-strong-marker-political-identity.aspx>. 2014 Accessed 08,07,14.
7. Holland J. Why is the Conservative Brain More Fearful? The Alternate Reality Right Wingers Inhabit is Terrifying. *AlterNet* (U.S.). <http://www.alternet.org/story/155210/why_is_the_conservative_brain_more_fearful_the_alternate_reality_right-wingers_inhabit_is Terrifying?page=entire>; 2012Accessed02,10,14.
8. Schwartz S. One to the Many. From One to the Many: The Social Implications of Nonlocal Perception *Explore*. 2014;10(3):p146-149. <http://www.explorejournal.com/article/S1550-8307%2814%2900037-8/fulltext>. [Published online: February 27, 2014].
9. Kanai R, Feilden T, Firth C, Rees G. Political orientations are correlated with brain structure in young adults. *Curr Biol*. 2011;21(8):677-680.<http://dx.doi.org/10.1016/j.cub.2011.03.017>. [Epub 2011 Apr 7].
10. Tencer D. Study: conservatives Have Larger “Fear center” in Brain, *The Raw story*. <<http://www.rawstory.com/rs/2010/12/conservatives-fear-center-brain/>>; 2010 Accessed 02,10,14.
11. Kahan D, Braman D, Jenkins-Smith H. Cultural cognition of scientific consensus. *J Risk Res* 2014 [Preprint]. <http://dx.doi.org/10.1080/13669877.2010.511246.12>. A Dictionary of Quotations. <<http://www.bartleby.com/73/1593.html>> Accessed 08,05,14.
12. A Dictionary of Quotations. <<http://www.bartleby.com/73/1593.html>> Accessed 08,05,14.